

# “이웃아름 어루만지는 연말”

## 사찰·복지단체등 자비행사 다채 조계종 불우이웃돕기 창구 개설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이웃을 위한 자비나눔 행사가 활발해지고 있다. 사회전체적인 경제위축에 어려움이 더 클 이웃들을 보살피자는 활동이 예년보다 다소 늘고 있는 것.

조계종 총무원이 불우이웃돕기 운동과 문의창구(02) 735-5864)를 개설한데 이어 서대문 백련사와 칠곡 흥국사가 불우이웃을 위한 송년법회와 전시회를 가졌으며 양산 통도사 지명스님이 거창군청에 향 2만5천개를 보냈다. 또 속초복지관은 12일 불우청소 10여명에게 5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청주신행회(회장 신호식)도 12일 한달동안 보육원과 양로원을 위문할 계획이어서 훈훈한 미담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11월 26일 전국 본말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어려운 때일수록 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는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

는 것이 필요하다”며 “불우이웃 돕기운동을 실시하여 결과를 내 2월 28일까지 사후보로 보고 해 줄 것”을 통보했다. 또한 조계종은 우리농산물 애용운동도 전개하여 경제살리기에 앞장서기로 했다.

서울 흥은동 백련사(주지 운경)는 11월 30일 대웅전에서 서대문구 생활보호대상자 1백10명을 초청하여 송년법회를 갖고 백미 20kg들이 1포대씩을 나눠줬다.

경북 칠곡 흥국사(주지 정목)는 11월 22일과 23일 경내 특설 전시장에서 불우이웃을 돕기위한 진품명품 전시회를 열었다. 2백80여점이 판매된 이번 전시회는 정목스님이 30년간 수도생활중 틈틈이 모은 동·서양화등으로 수익금은 모두 가난한 아이들에게 전달한다.

통도사 지명스님은 11월 27일 거창군청을 방문하여 정주환군수

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달라며 6백80만원 상당의 향 2만5백개를 전달했다.

지명스님은 95년부터 7차례에 걸쳐 13만개의 향을 불우이웃 4천2백20명에게 보시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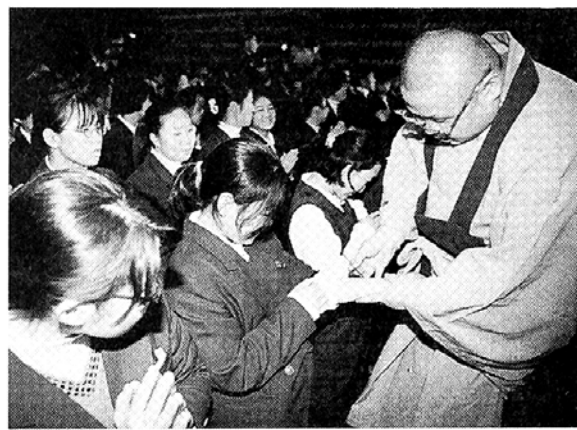
한편 청주신행회(회장 신호식)는 연말을 맞아 다양한 자비나눔 행사를 실시키로하고 7일 해능보육원, 15일 청주양로원, 21일 무의탁노인, 21일과 28일 미경고교(구 청주소년원)를 방문하여 연료비·선물전달 및 다양한 위문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 범어사 복지법인 설립 봉사·장학사업등 추진

부산 범어사(주지 성오)가 11월20일 부산시에 신청한 ‘사회복지법인 범어사’의 설립이 허가돼 부산지역 불교 복지활동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범어사는 복지법인 설립과 함께 사회복지관 및 복지시설운영과 지원, 자원봉사단 구성, 장학사업 등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법인 범어사의 대표는 성오스님이며 이사는 벽과 선래 흥교 상운스님이다.



동국학원 학생·학부모 1천명 수계

“을 살바뭇자 모지 사디야 사바하.” 동대부중·고, 명성여중·고의 1천여명 청소년불자와 학부모, 교사가 일심으로 참회집회를 열어 참 불자로서 거듭날 것을 발원했다. 학교법인 동국학원(이사장 복원)이 11월26일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에서 봉행한 서울지역 합동수계 현장. 오계를 수지하고 연비에 입하는 불자들의 결연한 모습이 법당 안을 가득 메운 만물(萬佛)의 미소를 띠어가는 듯했다.

## 진각종 ‘위덕대 군승’ 종단협에 협조요청

조계종의 반대로 흥미를 거둔 해운 위덕대 군승사관후보생 선발대학 지정문제와 관련된 진각종이 마침내 독자추진에 나섰다.

진각종(총리원장 성호)은 위덕대 군승사관후보생 선발대학 지정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종단협 이사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줄 것을 11월25일 종단협의회의 공식 요청했다. 또 태고종 천태종을 비롯한 종단협 소속 24개 각 이사진단에도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진각종은 종단협에 발송한 공문에서 “이 문제는 조계종과 진각종 양자간의 문제가 아닌 범불교적 문제며, 종단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한 종단협 정관 시행세칙 ‘각 위원회 설치규정’ 제3조 제4항에 의거 본 사안을 이사회 의안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계종이 견지해 온 입장에 비춰볼 때 종단협 차원의 해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 뉴스 & 뉴스

### 5일 ‘공동체운동’ 심포지엄

한국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스님)은 5일 오후2시 서울YMCA 6층 지관관에서 ‘생태위기시대의 공동체운동’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생태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의 하나로 관심이 높은 공동체운동에 대해 조명해보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천구석(공생농부대 대표) 김현진(햇살선교센터 해의선교부) 고상현(한국불교환경교육원 연구원)씨가 ‘외국공동체운동의 사례발표’ ‘우리역사에 나타난 공동체의 현대적의미’ ‘현단계 국내공동체운동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제한다.

### 8일 한국불교기자상 시상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는 8일 오후 6시30분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제1회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을 갖는다.

한국불교기자상 대상인 선원빈기자상에는 이만섭(법보신문)기자, 기획·해설부문 이상수(주간불교신문)기자, 취재·보도부문 윤기석(현대불교신문)기자가 선정됐다.

### 기원학사이전 반대

동국대 기원학사생(사생장 김정철·불교학과 3년)들은 11월26일 “지난 10일 학교측에 △중요승가대로부터 기원학사 토지 매입 △불교대학 단독기숙사 건립 등을 요구했다.

학교측은 기원학사의 중앙승가대 이전을 불가항력이라 밝히고 △내년 일산에 4천2백평 규모 기숙사 건립 △이미 매입한 일산의 제일은행 야구단 숙소를 기숙사가 완공되기 전까지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자비집 ‘김장나누어주기’

자비집(회장 동광스님)은 11월27~28일 5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일손을 도운 가운데 1천 포기의 김장김치를 불우이웃에게 전달했다.

대상은 무의탁 생활보호노인과 마포, 미아, 상계, 내산, 등계동 등 서울지역 6개동 소년소녀가장 4백가구이다.

##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회 개원

### 신문학·불교예술·아동교육 등 연구추진

종합적인 불교연구를 위한 불교사회문화연구원이 설립된다.

동국대 부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호진스님)은 4일 경주캠퍼스 정각원에서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한다.

연구원은 불교문화 발전과 불교미래의 방향제시를 목적으로 △불교관련 사회과학 문화예술 연구 △연구회 강연회 추진 △논문집 발간 등 출판 △국내외 불교연구단체와 제휴 등을 추진한다

는 계획이다. 특히 연구원은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불교학, 신문학, 불교아동, 불교예술, 불교사회학 등 5개 분야의 연구부를 갖춘 연구위원회도 설치한다.

불교학연구부는 불교학 불교역사 불교철학, 선문화연구부는 선학 선사상 선철학, 불교예술연구부는 불교음악 불교미술, 불교사회학은 복지학 불교의학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 일본사서 1669년 필사본

지난 4월 교토(京都) 일련종(日蓮宗) 본산 일본사(立本寺)에서 발견된 ‘법화경’ 필사본이 일본 헤이안시대 후기(약 1669년경)에 사경된 것으로 밝혀졌다. 종 1부(部) 8권으로 두루마리 형태인 ‘법화경’ 필사본은 그 길이가 약 80m에 이르며, 한권의 길이가 10m, 폭 25cm 크기이다.

또 간결하게 쓰인 글자들 사이에는 금은박(金銀箔)으로 새긴 꽃, 새, 풀 그림과 행간에는 고양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필사본 발견 후 조사를 진행해 온 임정대(立正大) 나카오코오

## ‘법화경’ 발견

(中尾亮)교수는 “외장(外裝)은 에도(江戸)시대 것으로 보이지만 글자나 그림은 지금까지 최고로

## 동국대-日용곡대 첫 학술세미나

### 10일 日서 ‘한일전통문화 비교연구’ 주제로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는 일본 용곡대학교와 공동으로 10일 용곡대학 평화관에서 ‘한일 전통문화 비교연구’를 주제로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송석구총장과 가마다 시대요교수(용곡대)가 각각 기조연설하고 도업스님



## “아낌없이 주는 나무”

### 200억 재산 사후 국가기증 김영한보살

경제학자가 전국을 감타하고 있는 가운데 무소유(無所有)의 정신을 실천한 불자가 있어 따뜻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해 1천억원대의 요정 ‘대원각’을 ‘김상사’ 사할로 교계에 기증해 화제를 모았던 김영한(82)보살이 바로 그 주인공.

김보살은 경제적 불황의 골이 깊어지자 나머지 정재산을 사후 국가에 기증키로 결심했다. 10월말 지방인 심장병과 고혈압으로 수술을 받은 후 10분만 대화를 나누어도 숨이 찰 정도로 건강이 나빠지자 “여생을 정리할 때가 온 것 같다”며 이달 초 재산기증 공증절차를 밟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자리에서 김보살은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치매증세도 있으니 정신이 맑은 지금 내 뜻을 밝히겠다”며 “나 죽거든 정재산을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 쓰이도록 국가에 기증해 달라”고 말했다. 김보살이 이같은 결심은 평소 생각해 왔던 ‘내 것이라고 집착한 물건 때문에 근심한다. 인간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떠난 것’이라는 부처님의 사상을 실천해 온 결과였다.

김보살의 남은 재산은 서울 서초동 범일 근처 대치 3백평의 7층짜리 남촌빌딩과 현재 살고 있는 8억원대의 용산구 이촌동 80평 빌라 등 모두 2백억원대에 달한다.

## 심장병등 건강악화 “과학발전 보탬됐으면”

### 작년 1천억 ‘대원각’ 신도수행도량으로

인정대 온(평가남경(平家南經)) 법화경보다 오래되고 정교하여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또 “간혹 사슴의 뿔로 새긴듯한 일본글자들이 보이는 것으로 봐 자주 독송된 듯하다”고 말했다.

대선 가도가 뜨겁다. 경제적 위기 속에 달아 오른 대선열기는 불교계라고 예의일 수 없다. 각당의 후보들은 이미 불교계를 향한 공약을 밝혔으며 단위조직을 통한 ‘불심 불들기’에 매진하고 있다.

각 후보들과 당이 선거를 앞두고 불교계를 대하는 태도는 92년 대선때와 사뭇 다르다. 불교계의 현안 문제를 보다 깊이 들여다 보려고 애쓰는 모습도 보였고, 보다 많은 자리를 만들어 해결을 더 나가시려는 의지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당이 내놓은 공약은 큰 차이가 없다. 현정부가 실수한 종교편향의 문제라든가 국립공원 입장료 문제, 사찰 환경보존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가 공약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불교계에 있

어 매우 현실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공약들은 불자들이 기대하는 불교발전과는 거리가 있다. 어차구니 없이 풀출된 현실문제일 뿐이고 이 현실문제를 해소시켜 준다는 공약이 불교발전의 묘약이라고 여길 수는 없는 것이다. 새 정부에게는 새로운 것을 기대해야 한다. 과거



## 목탁소리

### 임연태

〈취재1부 처집〉

## 대선공약 유감

의 잘못된 인정된 순간 이미 시정의 실마리도 갖춰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후보에 따라서는 민족문화 수호의 차원에서 황룡사와 미륵사를 복원 하겠다든가 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강화를 약속하는 등 하지만 그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따라 다닐

수 밖에 없다. 진정 불교가 발전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내놓은 공약은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왜 그런가. 정치권이 다가와서 들여다 보는 눈은 한계가 있다. 불교계가 종교적 품위를 잃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다 중요한 문제들이 공약사항으로 떠오르게 유도 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불교 발전은 교단내의 노력에 의해 자주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겠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정치권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선에서도 불교계가 정치를 보다 적절히 ‘이용’하는 기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 (香妃) 천연방향약용식물을 이용한 여성질병의 치료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 香妃(향비)란?

### A Queen Consort

향기로운 香(냄새)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미를 상징합니다. 태아가 언더의 태극로 모태에서 영양공급을 받는 것처럼, 향비(香妃)는 인체공학적인 모형의 흰 밴드에 천연방향약용식물(天然芳香藥用植物)인 향비를 넣어 여성이 착용할 때, 뇌세포에 신선한 산소와 자연의 정기인 파이톤 사이드(Phytoncide)를 공급해 줌으로 향비는 모든 여성을 신세계(新世界)로 창조(創造)시킵니다.

## 내분비계 개선효과 큰 (향비)

### 생리통, 기미효과 탁월

“여성들에게 있어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특히 기미 등이 생기는 것은 쉽게 말해 인체의 신양부족(伸陽不足)으로 인한 내분비계 이상이 그 원인이 된다. 즉 내분비계가 무너지면 일차적으로 여러 종류의 부인과 질병이 발생합니다. 곧이어 기(氣)가 막히고 혈(血)이 뭉치게 되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되게 돼 점차적으로는 얼굴 부위에 미세혈관의 순환장애가 오고 그것이야말로 기미가 생기게 됩니다. 미용허리띠 향비는 바로 인체 내의 이러한 부전상태를 차단합니다.”

## 과학적으로 알아보는 향의 효능

20세기초 프랑스의 비교 병리학자 R. U. 갈드판세에 의하여 방향성분이 들어 있는 생약과 각종 향신료를 직접 치료에 응용하는 영역을 개발하였다. 이의 결과는 매우 훌륭한 것이어서 향기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집중시키며, 수면이나 각종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2)755-9821, (080)200-4545

## 나에게는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O) 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
- 5. 기미가 있다. (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
- 9. 생리대 밧짚이 검고 딱딱하다. ( )
- 10.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는 편이다. ( )
- 11.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 12.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 )
- 13.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굳은 살이 있다. ( )
- 14.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 )
- 15. 목이 뻣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 16. 변비가 있다. ( )
- 17. 당뇨와 감상선으로 고통을 받는다. (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 두통, 관절염, 방광염(오줌소태)이 좋아짐

인선사 북구 산곡동

저는 58세의 주부로서 생년기 장애로 인하여 건강상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과 후에 심한 피로와 두통 또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오줌소태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좋다는 건강식품 또는 병원에서 권하는 물리치료들을 해보았으나 일시적인 효과만 뿐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향 요법을 써보라는 소개로 “향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주위의 권유로 인하여 향비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두통과 피로를 느끼지 못하다니 향비착용후에는 관절염으로 인한 다리의 통증이 없어졌고 제가 항상 고민하던 방광염이 좋아졌습니다. 향비의 놀라운 효과에 지금은 나와 가족과 이웃에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시는 “향비”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